

기아차(000270)

매수

목표주가 79,000원

주가(5/24) 57,700원

3가지 호재로 2분기 실적 기대감 증폭

4월 원화환산 수출 ASP 3개월 연속 반등

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기아차의 수출 ASP는 4월에도 견고한 상승세를 이어갔다. 4월 수출 ASP는 전년동월대비 5.5% 상승한 13,322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11년 7월 13,568달러 이후 최고치다. 또한 2월 이후 지속된 원/달러 환율 상승으로 원화환산 수출 ASP는 동기간 4.2% 상승한 1,494만원으로 1월 1,325만원에서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. 이러한 수출 ASP의 상승은 미니밴 및 고급 세단의 수출 강세에 따른 것이다. 4월 Carens 수출은 신모델 출시로 전년동월 2,243대에서 5,697대로 크게 증가했다. K7과 Carnival 수출은 각각 2,156대(+345.5% YoY), 3,777대(+38.8% YoY)로 증가했다. K9 수출은 작년 9월부터 시작됐으며 282대를 기록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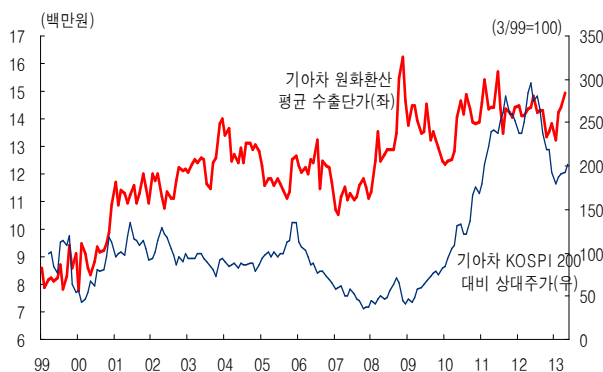
3가지 호재로 2분기 실적 기대감 증폭

4월 수출 ASP 상승폭은 2분기 수출단가가 전년동기대비 1.8%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당사의 가정보다 세배 높은 것이다. 4월 판매대수(+8.7% YoY) 및 원/달러 환율(1,121원) 또한 당사의 2분기 예상 판매 증가율 1.6% 및 환율 가정치인 1,064원을 훨씬 상회했다. 결론적으로 우호적인 환율 하에 예상보다 4월 수출 ASP 및 판매가 강세여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판단이다. 기아의 판매 강세 및 ASP 상승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는 1) 품질 및 브랜드 이미지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, 2) 경쟁력 있는 신차 비중이 상승하고 있으며, 3) 우호적인 원/달러 환율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. 한편 현대의 4월 수출 ASP는 전년동월대비 2.6% 상승해 사상 3번째로 높은 16,123달러를 기록했다.

Valuat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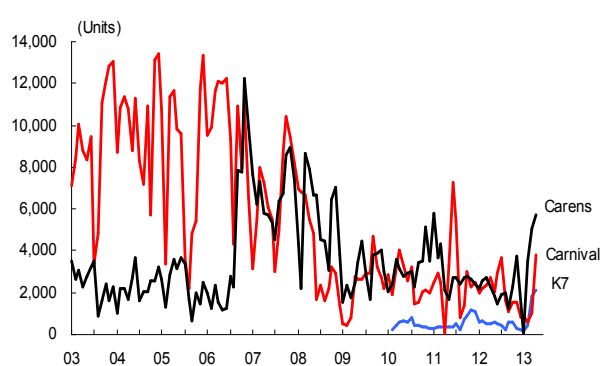
기아차에 대한 '매수'와 목표주가 79,000원(12개월 forward PER 8배, 업종평균 PER)을 유지한다.

[그림 1] 기아차 원화환산 수출 ASP vs KOSPI에 대한 상대주가



자료: 한국자동차산업협회, 한국투자증권

[그림 2] 기아차 Carens, Carnival, K7 수출



자료: 한국자동차산업협회, 한국투자증권

서성문 3276-6152
sungmoon.suh@truefriend.com

진만 3276-6279
jinman05@truefriend.com

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내역

종목(코드번호)	제시일자	투자의견	목표주가
기아차(000270)	2011.04.29	매수	105,000 원
	2013.01.09	매수	90,000 원
	2013.01.25	매수	79,000 원



■ 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2013년 5월 27일 현재 기아차 종목의 발행주식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의 내용 일부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상기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기아차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(주식워런트증권)를 발행 중이며,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공급자(LP)입니다.

■ 기업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현 주가 대비 주가등락 기준임

- 매 수 : 현 주가 대비 15% 이상의 주가 상승 예상
- 중 립 : 현 주가 대비 -15~15%의 주가 등락 예상
- 비중축소 : 현 주가 대비 15% 이상의 주가 하락 예상
- 중립 및 비중축소 의견은 목표가 미제시

■ 업종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해당 업종의 유가증권시장(코스닥) 시가총액 비중 대비 포트폴리오 구성 비중에 대한 의견임

- 비중확대 :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(코스닥)시가총액 비중보다 높이 가져갈 것을 권함
- 중 립 :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(코스닥)시가총액 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권함
- 비중축소 :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(코스닥)시가총액 비중보다 낮게 가져갈 것을 권함

■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,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할 수 없습니다.

■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.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■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